

일반논문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 양 식(청주대학교 조교수)

목차

1. 머리말
2. 전봉준의 인간관과 사회의식
3. 전봉준의 정치의식과 실천
4. 맺음말

1. 머리말

전봉준(1855~1895)은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로서, 불꽃 같은 삶을 통해 ‘혁명’을 역사 위에 남기고 간 인물이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동학농민혁명을 낳은 전봉준의 삶과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실제 갑오년에 어떻게 실천되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등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고 글을 남겼다.

장도빈이 1924년에 최초로 갑오년 대사건을 혁명으로 규정하고 전봉준을 혁명가로 평가한 이후,¹ 전봉준 혁명사상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는 1974년에 가서야 김용덕에 의해 이루어졌다.² 김용덕은 격문 분석을 통해 전봉준의 혁명사상을 다루었는데, 전봉준을 혁명가로 자리매김하면서도 전봉준의 혁명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뒤 전봉준 사상에 관한 연구가 종종 있었으나, 의외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한용희는 전봉준의 정치이념이 보국안민에 있으며 그 근본 사상이 사랑과 정의 그리고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논지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³

1990년대 들어와 주목되는 연구는 정창렬에 의해 이루어졌다. 동학의 피론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접근한 정창렬은 전봉준을 변혁적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보국안민의 정치이념하에 폐정개혁을 통한 봉건제도 자체의 혁신까지도 세계상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았다.⁴ 그 뒤 정창

1 장도빈, 『甲午東學亂』, 1926;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262~263쪽.

2 김용덕, 「격문을 통해서 본 전봉준의 혁명사상」, 『나라사랑』 15, 1974.

3 한용희, 「동학혁명과 전봉준」, 『숙대학보』 21, 1981.

렬은 전봉준에 대한 인물평에서도, 전봉준을 개혁적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넓은 정치를 개혁할 능력’과 ‘새롭고 선명한 독립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인물로 보았으나,⁵ 탐관오리 축출, 토지제도 개혁, 합의법에 따른 정치 등 개혁 내용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혁명사상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창렬 연구 이후 전봉준 사상에 관한 역사학계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박맹수는 무장 포고문,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 폐정개혁안, 만국공법 등을 분석하여, 동학사상에 기반을 둔 전봉준의 평화사상을 분석하였다.⁶ 그에 따르면 전봉준은 내면의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동시에 추구한 평화주의자였다.

최근 전봉준에 관한 연구는 인간적인 측면에 주목하거나 평화와 같은 현 시대적 담론과의 연계 속에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봉준 평전에서 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출간된 전봉준 평전에 나타난 전봉준 이해는 혁명가로서 접근하면서도,⁷ 인간적인 전봉준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가치를 찾으려는 관

4 정창렬, 『갑오농민전쟁 연구-전봉준의 사상과 행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5 정창렬,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내일을 여는 역사』 2000 여름호, 2000.

6 박맹수, 「전봉준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1, 2017; 박맹수·조광환, 「전봉준의 동학사상」, 『한국종교』 53, 2022.

7 대표적인 전봉준 평전은 신복룡의 『전봉준 평전-동학농민혁명 125주년』(들녘, 2019), 김삼웅의 『녹두 전봉준 평전』(시대의 창, 2007), 이이화의 『전봉준, 혁명의 기록』(생각정원, 2014) 등을 들 수 있다. 신복룡은 『월간 조선』 1981년 9월에 게재한 「실록 전봉준」을 바탕으로 1982년에 처음으로 『전봉준 평전』(양영각, 1982)을 간행한 뒤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996년에 이어 2019년에 다시 『전봉준 평전』을 재간행하였다. 이이화 역시

점으로 서술되었다. 그래서 신복룡은 영웅적인 혁명가 모습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전봉준 캐릭터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이화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평화주의자’라는 관점에서 정의롭고 희생적인 전봉준의 삶을 새롭게 형상화하였다.⁸

이와 같이 전봉준의 사상 연구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와 전봉준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혁명가’라는 경직된 인식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가치를 찾아내려는 고민은 긍정적이다.

기존 연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성격을 반봉건·반침략운동으로 규정한 나머지, 전봉준의 사상 역시 반봉건·반침략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서구형 근대의 경로만을 유일한 길로 보기 때문에 전봉준이 지향하고 꿈꾸었던 미래상을 다양하게 바라다볼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전봉준과 관련된 텍스트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다.⁹

특히 전봉준 사상의 원천은 유학이었고 그가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한 사회 역시 유교사회였다. 그가 사용하는 텍스트와 담론 또한 기본적으로 유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자원이었다. 그렇다면 전봉준 사상에 대한 접근은 전봉준이 지배적인 유교적 논리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여 현실 비판과 새로운 사회를 전망하는 지식자원으로 활용하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녹두장군 전봉준』(중심, 2006)에서 ‘평화주의자 전봉준’을 형상화한 뒤 수정·보완하여 2014년에 『전봉준, 혁명의 기록』을 재출간하였다.

8 조극훈, 「역사의 해석과 삶의 서사: 전봉준 평전 소고」 『동학학보』 58, 2021, 447쪽.

9 김상준, 「동학농민혁명과 ‘두 근대’의 충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참고.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봉준 사상을 보다 인간적인 측면과 19세기 시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전봉준 재판기록, 전봉준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여러 포고문, 격문 등의 글을 활용하되, 19~21세기로 이어지는 종단연구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에 우연히 발발한 것이 아니듯이, 동학농민혁명에서 분출된 여러 가치와 사상은 그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오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가치와 사상들은 시대를 관통하여 미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로서의 전망을 열어 놓고 접근하고자 한다.

2. 전봉준의 인간관과 사회의식

1) 인간관

1855년에 고창 당촌에서 태어난 전봉준은 10대부터 고부에 정착한 30대 중반까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고 가난과 수탈과 질병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의 세계관을 형성하였다.¹¹

10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재적·유교적 근대성 관련 연구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은주,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한국 근대성의 정당성 위기와 인간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 2014; 나종석, 「전통과 근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의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30, 2015;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2015.

11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25~42쪽.

전봉준은 기본적으로 정의롭고 희생적이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심지어 굳고 배포도 크며 의지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실제 전봉준의 교수형을 집행한 총순(總巡) 강모씨는 전봉준이 잡혀올 때부터 형을 받는 날까지 전봉준을 지켜본 인물이었는데, 전봉준의 인물 됴됨이에 탄복하였다. 전봉준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였고 죽는 순간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¹²

또한 전봉준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파하고 뜻을 같이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특히 전봉준은 개혁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었다. 전봉준을 옆에서 직접 지켜본 오지영은 전봉준이 항상 불평한 마음이 많아서 사람을 사귀어 도 신사상을 가지고 개혁심이 있는 자를 추수하였다고 회고하였다.¹³

이러한 전봉준의 인물 됴됨이와 개혁 의지는 다음과 같은 재판 심문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¹⁴

문: 네가 무슨 계책으로 탐관을 제거하려 하였느냐?

답: 특별한 계책이 있어서가 아니다. 본심이 안민하는데 간절하여 탐학을 보면 분하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탐학을 제거하는 일을 행한 것이다.

이처럼 전봉준은 민중들이 편히 사는 세상을 간절히 원하였다. 그 때문에 위정자들의 탐학에 분노하고 한탄하였다. 더 나아가 그러한 분개는

12 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1984, 167~168쪽.

13 위 책, 169쪽.

14 『全琿準供招』, 을미 2월 11일 전봉준 再招 問目.

그의 정의롭고 실천적인 성격과 만나면서 민중들을 구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전봉준의 인간관은 1894년 3월 20일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무장 포고문에서 엿볼 수 있다. 포고문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로 시작,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하면서 보국안민을 목적으로 의로운 깃발을 들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장 포고문의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인본가치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보편적 가치로서 인륜을 지닌 인민은 모두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¹⁵

전봉준은 공주 충청감영 공격에 앞서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첫 문장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은 기강이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다”로 시작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전봉준 사상의 출발점은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전봉준의 인간존엄 의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실천적인 것으로, 삶과 삶이 일치하였다. 전봉준은 재판받을 때, 재판관이 “너는 해를 입은 것이 없는데 왜 봉기하였느냐?”고 묻자, 전봉준은 “일신의 해를 위하여 봉기하는 것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

15 일부 학자는 ‘인륜’을 봉건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전봉준의 인간관이 전근대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나(문성호, 『전봉준의 민중정치사상과 체제구상』, 『정치정보 연구』 2-3, 1999), 무장 포고문 맥락을 볼 때 인륜은 보편적 개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奉準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리요. 여러 사람이 원통하고 한탄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였다.¹⁷ 민중의 원통과 한탄에 공감하고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의 인본사상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가능하였다.

북송의 주돈이(1017~1073)는 태극도설(太極圖說)을 통해, 무극이 움직여 음양오행의 생성원리에 따라 만물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우주의 빼어난 기운을 얻어 가장 영특한 존재로 파악하면서도 인의 예지 성품에 따라 성인과 군자·소인이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의 세계관이자 공통된 인간 이해였다. 특히 이 논리는 조선왕조의 신분제와 결합되면서 인간 불평등의 논리로 고착화되었다. 조선왕조의 이데올로기인 민본주의 역시 신분제를 전제한 것이었다.

반면에 전봉준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귀한 존재로 해석, 조선의 이데올로기와 신분 개념에서 일정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조선의 통치이데올로기와 성리학적 민본 이념은 철저히 통치의 대상, 신분 위계질서를 전제로 한 것이나, 전봉준이 바라본 인본은 신분 차별이 없는 나라의 진정한 주체로서의 인본이었다. 그 때문에 전봉준은 비록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성리학적 담론을 차용하였을지라도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었다. 이는 동일한 텍스트를 사용할지라도 형질을 달리하는 언어적 전환을 통해 인류 보편적 인본가치로 전복시켜 자기 언어화한 것이다. 이는

17 『전봉준공초』, 을미 2월 9일 전봉준 初招 問目.

동학의 가치체계, 교의적 상징들, 대안 사회상 등이 유교적 사유체계와 언어 및 상징 자원과 같은 관습적 의미망 속에서 배태되고 발전한 것에 비추어 볼 때,¹⁸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전봉준의 인간관은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따듯한 애정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그 때문에 사람은 귀하게 대접받고 상호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는 실천적 사회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특히 전봉준이 바라본 인간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인본가치 위에 있는 수평적인 평등한 인간관이었다.

이러한 인간관은 동학과 맥을 같이한다. 그래서 전봉준은 동학을 몹시 좋아하였다. 그 이유는 동학이 수심경천(守心敬天)하는 도학이고 보국안민의 주의도 같았기 때문이다.¹⁹

전봉준이 말한 수심경천은 동학의 수심정기(守心正氣)의 다른 표현이다. 하늘을 공경하는 경천은 하늘(우주)의 기운을 바르게 하여 모든 존재를 공경하는 정기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전봉준이 ‘정기’를 ‘경천’으로 받아들인 것은 전통적인 경천사상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이며,²⁰ 그 때문에 수심정기를 신조로 한 동학을 손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동학 역시 그 뿌리의 하나는 전통적인 경천사상이었다. 수운 최제우가 1861년 남원 은적암에서 지은 포덕문을 보면, 수운은 천도(天道)인 동학의 강령으로 수심정기와 성경신(誠敬信)을 제시하였다.²¹ 수운의 말에 의

18 김상준, 「대중 유교로서의 동학」 『사회와 역사』 68, 2005.

19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再招 問目.

20 조성환, 「바깥에서 보는 퇴계의 하늘섬김사상」, 『퇴계학논집』 10, 2012, 325~326쪽.

하면, 수심정기가 지향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 준 인의예지를 지켜내어 사람이 하늘인 시천주(侍天主) 세상을 열어 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화하여 영적으로 만물과 통하는 새로운 개벽세상이었다. 그러한 의식의 저변에는 하늘에 대한 영적 경외감,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 생태적 우주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학의 수심경전은 전봉준의 인간관과 상통하였다. 전봉준은 동학을 통해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사실과, 사람이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능동적인 주체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회의식을 일깨우고, 심지어 절대적인 국왕의 존재를 상대화시켜 바라볼 수 있는 의식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봉준의 인간관은 보편적인 천부인권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목된다.

2) 사회의식

(1) 평등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라는 전봉준의 인간관은 선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식으로 확장되었다. 전봉준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평등사상을 실천에 옮기었다. 전봉준은 고부에 살 때 “마을 사람이 오면 반드시 뒷마루에 나와 인도했고 그 집안의 경중, 신분의 고하를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²² 동학농민혁명 이전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평등주의적 삶을 살았고, 그것

21 『天道敎書』(천도교, 1920), 포덕 2년 辛酉年條.

22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42쪽.

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그대로 관찰시켰다.

실제 전봉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무장 포고문에 나타난 대립 축은 탐학한 위정자(수령) 대 그렇지 않은 인민이었다. 백산 격문도 ‘탐학한 관리와 횡포한 강적의 무리’ 대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벼슬아치’ 사이의 대립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대립 축은 의로움이 기준일 뿐, 그 안에 신분적·지역적 불평등은 없었다.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전봉준의 리더십과 군사적 지침이 잘 드러난 것은 동학농민군 4대 명 의와 12개조 기율이다. 이 강령은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고부를 점령한 뒤 전봉준이 직접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²³

동도대장이 각 부대장에게 명령을 내려 약속하기를, ① 매번 적을 상대할 때 우리 동학농민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의 공으로 삼을 것이며, ② 비록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③ 또한 매번 행진하며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말 것이며, ④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사는 동네 십 리 안에는 절대로 주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12개조 기율>

-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23 『朝鮮國東學黨動靜ニ關スル帝國公使館報告一件(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박맹수, 앞의 논문, 84~85쪽에서 재인용).

- 탐관은 쫓아낸다.
- 굶주린 자는 먹여 준다.
-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제거한다.
- 아픈 자에게는 약을 준다.
-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 따르는 자는 공경하며 복종한다.
- 간교하고 교활한 자는 못된 짓을 그치게 한다.
- 가난한 자는 진휼한다.
- 거스르는 자는 타일러 깨우친다.
- 불효하는 자는 벌을 준다.

이상의 조항은 우리의 근본이니, 만약 이 조항을 어기는 자는 지옥에 가돌 것이다.

이와 같은 4대 명의와 12개조 기율은 실제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유민권운동가였던 다나카 쇼조(田中正造, 1841~1913)는 ‘동학당’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동학당은 문명적이다. 12개조의 군율은 덕의를 지키는 것이 엄격하다. 인민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부녀자를 능멸하지 않는다. 군수물자는 지방관이 나 관아에 의거하고, 병력으로 권력을 빼앗고 재산을 취하되,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공평하다.²⁴

24 『田中正造全集』 第2卷, 岩波書店, 1978, 283쪽(기타지마 기신,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전개」,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38~39쪽 재인용)

이것으로 보아 동학농민군의 12개조 기율은 적어도 전봉준의 통제가 가능하였던 지역은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1894년 3, 4월 동학농민군의 동정을 소상히 전해 듣고 있던 황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²⁵

적은 관군의 소행과는 반대로 하기에 힘써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게끔 명령을 내려 조금도 이를 어기지 않으면서 쓰러진 보리를 일으켜 세우며 행군하였다.

황현의 기록은 동학농민군의 기율이 엄격히 지켜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부녀자와 재물을 약탈하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동학농민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 세력이 점점 커질 수 있었다.²⁶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의 4대 명義와 12개조 기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봉준의 사상은 먼저 평등사상을 꼽을 수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전봉준의 따뜻한 시선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중에 향하고 있었으며, 특히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정 계급이나 진영 중심의 규율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평등하고 공정하며 충효라는 공의(公義)를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다.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평등주의적 열망은 아래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전라도에서 집강소가 설치·운영되던 1894년 7, 8월 상황이다.

25 黃玑, 『梧下記聞』, 首筆(김중익, 『번역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79~80쪽).

26 위 책, 74쪽.

이로부터 세상 사람의 동학군 비평은 분분하였다. 동학군들은 귀천빈부의 구별이 없다거니, 적서와 노비·주인의 구별이 없다거니, 내외 존비의 구별이 없다거니……²⁷

이처럼 동학농민군들의 평등주의적 열망은 대단하였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역시 동학농민군들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신분제를 혁파하는 의안을 제일 먼저 제정하고 서둘러 반포하여 민간에 게시하였다.

(2) 상생

다음으로 4대 명義와 12개 기율에 나타난 전봉준의 사회의식은 서로 돕는 상생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2개조 기율은 가난하고 곤궁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돕는 상생의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탐관·불충불효자 등은 엄하게 다루어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전봉준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뒤 감옥을 열어 죄수를 풀어 주고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3월 25일 백산대회 때는 잠입한 전주 감영 소속 장교들을 체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용서하여 개과천신할 기회를 주었다.²⁸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직후에도 옥문을 열어 죄수를 석방하고 창고를 열어 빈민을 구휼하였다. 그리고 죄가 있는 관리일지라도 반성하고 동학농민군의 의거에 따르는 자는 특별히 용서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²⁹

27 오지영, 앞 책, 139쪽.

28 오지영, 앞 책, 122·125~126쪽.

동학농민군의 기율은 동학의 유무상자(有無相資)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동학은 초기부터 신분과 성별·세대의 차별 없이 서로 돕는 전통이 있었다.³⁰ 이 때문에 전봉준도 수심경천하는 동학을 몹시 좋아하였다.

(3) 생명 존중

다음으로 동학농민군의 4대 명 의와 12개 기율의 바탕을 이루는 사상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관을 찾아볼 수 있다.³¹ 전봉준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겼던 만큼 못 생명을 존중하여 사랑하였다.

4대 명 의는 모두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다. 그래서 ①과 ②는 상대 진영일지라도 목숨을 귀히 여기고, ③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④의 경우는 선한 사람의 경우 존중해서 절대로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12개조 기율 역시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아픈 자에게는 약을, 따르는 자는 공경을, 거스르는 자는 타일러 깨우치게 하는 등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자들은 포용적으로 감싸 주어 대승적으로 하나 됨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4대 명 의와 12개조 기율은 고부 백산대회 이후 전봉준이 공포한 것으로 알려진 동학농민군 4대 명 의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명 의는 “사람과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 것”이었다.³² 이처럼 전

29 위 책, 134쪽.

30 표영삼, 『동학』 1(통나무, 2004), 271~276쪽.

31 박맹수, 「동학의 공공성 실천과 그 현대적 모색」,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 2017, 95쪽.

32 鄭喬, 『大韓季年史』, 3월 25일조.

봉준은 사람은 물론 가축 같은 생물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을 제일의 덕목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봉준의 생명관은 폐정개혁안 12개조의 첫 번째 조항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 첫 번째 조항은 ‘인명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버힐 사’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조항을 첫 번째로 꼽았는지가 의문스러웠으나, 생명에 대한 전봉준의 존엄의식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봉준은 모든 인간을 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이끌어 서로 돕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봉준의 인간관은 사람을 중심에 놓되, 못 생명과 생명의 가치로 연결된 생태인본주의에 가깝다.

3. 전봉준의 정치의식과 실천

1) 보국안민의 길

동학을 창시한 최제우와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전봉준은 내외외환이 점증하던 19세기에 정확히 31년 나이 차이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점, 가장 혈기왕성하고 꿈 많던 20대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견문하고 민초들의 처참한 삶에 공감한 점, 보국안민을 위해 온몸을 바친 점, 똑같은 41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점 등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택한 보국안민의 길은 달랐다. 최제우는 1860년 동학을 창시하여 주문 수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인 사회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없었다. 무위이화를 통한 보국안민, 개혁을 지향한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이 “동학을 배우면 병을 면하는 것 외에 다른 이익은 없느냐”고 묻자, 단호하게 다른 이익은 없다고 말하였다.³³ 그래서 전봉준이 택한 보국안민의 길은 동학의 무위이화와는 달리 사회 모순과 부조리에 맞서 직접 싸우는 것이었다.

실제 전봉준이 내세운 동학농민혁명의 목적과 정치사상은 한마디로 보국안민에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목적 및 지향성이 담긴 무장 포고문은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 하였다.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전봉준은 “우리는 보국안민을 주장하는 자라, 백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노력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놀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³⁴ 1895년 3월 재판을 받을 때 일본영사가 9월에 재기병한 이유를 묻자, 전봉준은 일본의 속내를 파악한 뒤 보국안민의 계획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답변하였다.³⁵

전봉준은 순창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보낸 6월 7일자 글에서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하였다.³⁶ 이러한 전봉준의 글은 무장 포고문과 맥을 같이한다.

33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34 오지영, 앞 책, 134쪽.

35 『전봉준공초』, 을미 3월 10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36 『二六新報』, 明治 27년 8월 15일(강창일, 「갑오농민전쟁 자료발굴」 『사회와 사상』, 1988, 255~256쪽).

이처럼 보국안민은 전봉준이 혁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국안민의 정치적 주체는 일반 민중들이었다. 이는 비록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는 조선왕조의 지배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담론의 주체, 지향성, 목적 등을 달리하는 ‘같은 문자 다른 뜻’이다. 전봉준은 유교적 지배 이념의 재해석을 통해 보국안민을 위한 투쟁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³⁷

‘보국안민’이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 1894년(고종31) 이전에 총 14건 등장하는데, 13건 모두 ‘보국안민(保國安民)’이라고 하였고 1건은 세종 때 송나라 왕안석의 예로 유일하게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용어가 있다.

‘보국안민’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검색한 결과, 고전번역서에는 3건, 고전원문에는 5건, 한국문집총간에는 22건에 불과하였다.³⁸ 한자 표기는 輔國安民 또는 保國安民 모두 혼용해서 쓰나, 후자가 더 많았다. 이것으로 보아 보국안민은 주로 치자나 위정자 입장에서 사용되었어도 흔히 사용된 개념은 아니며, 사용되더라도 ‘保國安民’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동학의 정치적 이념으로 제시한 슬로건은 輔國安民이었다. 보국안민은 수운이 지은 포덕문(1861년 3월)과 권학가(1862년 1월)에 처음 등장하는데, 동학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 보국안민하자는 것으로 선험적이고 관념적이었다. 그 뒤 1892년 11월 삼례 교조신원운동 때 해월 최시형이 전라감사 이경직(李耕植)에게 보낸 글에, “우리들이 정성스런

37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사림』 45, 2007, 163~164쪽;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2017 참조.

38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2022년 6월 23일 검색).

마음으로 도를 닦아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는 비는 輔國安民과 포덕천하(布德天下)의 큰 바람뿐이니라” 하였다. 동학이 내세운 보국안민은 다양한 사람들을 흡수하고 확산시키는 상징 언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민중들의 정치적 자각과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실제 동학의 보국안민이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 현실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변혁하는 투쟁이념으로서의 실천성은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었다. 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최시형은 전봉준에게 통유문을 보내 경거망동하지 말고 시운을 기다려 하늘의 명을 따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전봉준을 비롯한 각처 동학도들은 보국안민을 소리쳐 말하고 서로 다투어 깃발을 걸고 일어났다.³⁹ 이와 같은 사실은 보국안민이 더 이상 동학의 비정치적 틀 안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투쟁 슬로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보국안민의 주체, 목적, 실천 방안 등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학이 내세웠던 보국안민과는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⁰

실제 1892년경부터 동학에 깊이 관계한 전봉준은⁴¹ 동학의 핵심 사상인 보국안민을 좋아하고 공감하였다.⁴² 수심경천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한 동학도들이 협동하면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39 『천도교서』, 포덕 35년 갑오년조.

40 강재인, 『한국근대사연구』, 한울, 1982, 157쪽.

41 이이화는 전봉준이 1892년에 사회변혁수단으로 동학에 입도한 것으로 보았으나(앞 책, 45~46쪽), 구체적인 시기는 불명확하다. 1888년 무렵부터 손화중과 빈번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만큼, 전봉준은 1892년 이전에 이미 동학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송정수,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해안, 2021, 89~90쪽 참조.

42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⁴³

따라서 전봉준이 동학에 들어간 것은 동학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국안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동학의 보국안민은 전봉준의 투쟁 목표로 전환되어,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발전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무장 포고문에는 ‘보국안민’이 두 번 나온다. 그만큼 보국안민이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그중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꺾이면 나라가 잔약해짐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보국안민의 계책은 염두에 두지 않고” 탐학을 일삼는 수령들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보국안민의 핵심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보국의 길인 것이다. 포고문 전체 논지 역시 보국(輔國)하는 길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나, 수령들이 사리사욕에 젖어 탐학을 일삼아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가 위태로워졌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장에서 출발한 전봉준 등이 고부 백산에 집결하여 띄운 격문도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다 두고자 함”이라고 하였는데,⁴⁴ 논리적으로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하는 일이 곧 국가를 반석 위에

43 “輔國安民이라는 동학당의 主意에 동감하고 있던 바……단지 마음을 바로 한다는 것 때문이라면 물론 동학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동학당의 소위 敬天守心이라는 주의에서 생각할 때는 正心 외에협동일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結黨하는 것의 중요함을 본다. 마음을 바로 한 자의 일치는 간악한 관리를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탓이다”(『大阪朝日新聞』, 全綠豆의審問續聞, 명치28년 3월 3일; 『東京朝日新聞』, 東學黨大巨魁 審問續聞, 명치 28년 3월 6일).

두는 길이었다. 즉, 보국보다 안민에 더 무게중심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봉준은 수령들의 탐학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삶에 분개하고 가슴 아파하며 폐정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전봉준의 사상과 실천적 지향은 무장 포고문을 비롯해 각종 격문과 폐정개혁안에 잘 나타나 있다.

전봉준이 보국보다 안민에 방점을 찍은 것은 기본적으로 민유방본의 주체인 인민의 삶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정치이데올로기인 민본주의를 국왕 아래 만민평등사상으로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그 결과 왕과 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왕과의 관계가 재설정되면서, 전봉준의 발걸음은 점점 서울로 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봉준의 정치의식은 재판 심문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⁴⁵

문: 네가 이미 (대원군 효유문을) 진짜로써 보았다면 어찌 다시 봉기를 일으켰느냐?

답: 귀국의 속내를 상세히 알아보고자 그러함외이다.

문: 속내를 상세히 알아본 뒤에는 장차 무슨 일을 행할 계획이었느냐?

답: 보국안민의 계획을 행하고자 함외이다.

문: 네가 봉기를 다시 일으킨 것은 대원군의 효유문을 믿지 못해서이냐?

답: 전에 묘당의 효유문이 한돌에 그치지 않았으나 끝내 실시되지 않아서 아래의 실정이 위에 도달하기 어려웠고 위의 은택이 아래에까지 다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어코 일차로 서울에 이르러 민의를 상세히 개진하고자 하려 함입니다.

44 오지영, 앞 책, 123쪽.

45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9일 전봉준 5차 문목 일본영사 문초.

전봉준은 9월에 재봉기한 이유를 일본의 속내를 직접 알아보고 민의를 국왕에게 상세히 전달해 보국안민을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는 왕과 민이 1:1의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절대적이었던 왕의 존재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면서 정치의식의 발전을 통해 상대적인 위치로 변하였다.

실제 무장 포고문의 앞 부분에는 “지금 우리 임금님은 어질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지혜롭고 총명하시다.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있어서 잘 보좌하여 다스린다면 훌륭한 임금들의 치적을 해를 가리키며 바랄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 전봉준은 기본적으로 임금의 존재를 존중하는 근왕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표상화된 상징과 명분이었다. 그 때문에 운동 전이과정에서 근왕주의적 허상은 점점 해체되고 국왕과 민이 1:1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는 곧 민이 국왕과 직접 소통하고자 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역사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이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한 뒤 홍계훈이 이끄는 정부군과 전주성을 경계로 대치하던 5월 초2일 전봉준이 홍계훈에게 보낸 소지는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무장 포고문과는 다른 전봉준의 인식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예전 감사가 수많은 양민을 죽인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물으려 하는가? -선유 종사를 살해한 것은 윤음을 보지 못하고 다만 토포라거나 모병하라는 문자만 보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는가? -탐관은 마땅히 낱알이 죽여서 제거하는 게 무슨 죄인가? 각하가 잘 생각해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다.”⁴⁶

전봉준은 4월 25일 원평에서 선유 종사로 내려온 이효은·배은환 등을 처단하였는데, 토포와 모병 문자만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왕이 보낸 관리일지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죽일 정도로, 국왕을 대하는 전봉준의 태도는 단호하였다. 그러면서 폐정 개혁에 대한 임금의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응답을 홍계훈에게 요구하고 있다.

전주성을 점령한 전봉준은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왕명을 받들었으니 귀순하라는 효유문을 5월 5일 받고도 저항하였다.⁴⁷ 그러면서 홍계훈에게 폐정개혁조항을 국왕에게 직접 아뢰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허락을 받아냈다. 또한 전봉준은 전주화약 이후 전라감사 김학진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해산하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보고하여 허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전라감사 김학진을 통해 국왕을 상대로 한 협상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양호초토사 홍계훈이나 전라감사 김학진을 중간 매개로 한 국왕과의 소통은 제한적이었고 효과도 없었다. 실제 전봉준은 재판받을 때, 홍계훈 등을 통한 폐정개혁의 실효가 없었고 일본이 대궐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직접 서울로 올라가 국왕을 상대로 폐정을 개혁하고 민영준·고영근 같은 중앙의 간신들을 축출하여 보국안민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⁴⁸ 갑오년 9월 이전 위정자를 중간 매개자로 한 보국안민의 길에서, 9월 이후 국왕을 직접 상대하는 보국안민의 길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이 진전되면서 잠재된 전통적인 근왕주의가 해체되고 민이

46 『兩湖招討謄錄』, 5월 초4일 賊黨訴志.

47 『양호초토등록』, 5월 초5일 효유문.

48 『전봉준공초』, 을미 2월 11일 전봉준 재초 문목.

왕을 직접 상대하는 수준까지 정치의식이 발전한 것이다.

2) 정의로운 실천

전봉준이 죽음을 무릅쓰고 항쟁에 나선 명분과 정당성은 의로움이였다. 전봉준은 무장 포고문에서, 동학농민군이 직접 보국안민의 길에 나선 행위를 의롭고 마땅히 해야 할 거사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의로운 깃발을 들어 투쟁에 나선 것이다. 고부 백산에서 발한 격문 역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다. 1895년 3월 재판관을 받을 때 9월에 재기병한 이유를 묻자, 전봉준은 일본이 불법으로 궁궐을 점령해서 충군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고 하였다. 한 나라의 민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라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투쟁본부를 민중을 구제하는 정의로운 곳이라는 의미의 ‘제중의소(濟衆義所)’라 하고 의자 깃발을 사용하는 등 의로운 투쟁으로서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전기기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다.

4월 16일 창의소 명의로 전주감영에 보낸 통문에서도, “이번 우리들의 의거는 결단코 다른 의도가 없으며, 탐관오리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흥선대원군을 받드리 나라를 감시하고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다.⁴⁹ 동학농민군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실천하기 위해 의로운 거사를 도모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군은 타락한 기존의 신하 대신 군신지의의

49 『隨錄』, 靈光上送彼類通文 完營留陣所.

실천 주체로서 위로는 종사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서민을 편안케 하기 위해, 즉, 보국안민을 위해 의로운 깃발을 든 것이다.

전봉준은 10월 16일 충청도 논산에서 ‘兩湖倡義領袖’ 이름으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일본의 도둑들이 군대를 움직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걱정스럽게 하니 어찌 참는단 말인가 --- 함께 의(義)로써 죽는다면 매우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의를 위해 죽음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⁵⁰

이것으로 보아 전봉준이 제시한 의로움은 전통적인 군신지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전봉준의 정의론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이다.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성인이 立人의 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있으니, 곧 仁과 義이다. 의는 군신 사이보다 그 덕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 없다. 무릇 국가가 환난에 처하였을 때, 그 신하된 자로서, 자신의 몸을 바쳐 분발하려는 자는 오직 의를 본받으려는 마음만을 가질 뿐, 사생과 화복은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덕을 가져야 성인이 이르신 입신의 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⁵¹

이 인용문은 1894년 9월 전라도 홍덕 유생들이 작성한 기록이다. 그들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수성군을 조직한 대의명분은 국가의 환난에 처한 임금님을 구하기 위한 군신지의였다. 그들은 그것을 정의로운 투쟁으로 여겼다. 이는 당시 성리학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의

50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瑋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51 『舉義錄』(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12, 2009, 428쪽).

리론이었다.

그렇다면 ‘군신지의’에 대한 전봉준과 유교 지식인의 해석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의로움을 행하는 주체의 문제이다. 유교 지식인은 신(臣)을 양반지배층으로 한정한 반면, 전봉준은 일반 민을 포함한 신민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특히 신하된 자들이 탐학을 일삼고 국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므로, 군신지의는 일반 민이 실천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봉준의 논리였다. 그 때문에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거의(舉義)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며 정당한 도덕적 실천으로 여겼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8월 13일 전봉준과 나주목사 민종렬의 대화내용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⁵² 전봉준은 자신의 행동이 탐관오리의 학정을 바로잡아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의거라고 하자, 민종렬은 전봉준 등은 난상(亂常)의 무리로서 임금님께 근심을 끼쳤으니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민종렬은 국왕의 명 없이 행동한 전봉준을 난상의 무리로 보았다. 반면에 전봉준은 국왕의 명이 없어도 보국안민을 위한 길이기때, 그것은 군신지의에 어긋나지 않은 의거로 보았다.

특히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왕에 대한 전봉준의 인식은 추상적인 존중의 대상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나갈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군신지의 개념 역시 보다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래서 전봉준의 의리론은 군신지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면서 정의로운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행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조선왕조의 통치이데올로기였던 민본주

52 『錦城正義錄』갑편, 甲午八月十三日 巨魁全奉準.

의가 보편적인 인본주의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인민들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근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3) 소통과 연대, 그리고 협치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끌면서 필요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세력과 소통하고 연대하려는 노력을 잊지 않았다. 이는 운동의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1893년 겨울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사발통문에는 소통과 연대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전봉준 등은 거사를 모의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한 뒤 사발 원을 따라 스무 명이 서명하였다. 이는 주동자를 색출하지 못하도록 한 측면도 있지만 참여자들의 민주적 소통과 연대의식을 바탕에 둔 것이다.

무장 포고문은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고 억조창생이 의논을 모아 지금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의 생사의 맹세로 삼노라”라고 하면서 의로운 혁명선언을 하였다. 온 나라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고 의논을 모았다는 사실은 온 나라 사람들이 상호 소통하고 연대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그를 통해 항쟁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무장에서 기포한 이후 고부 백산에 집결한 전봉준 등이 띄운 격문에서는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하층 관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고 하면서 함께 연대하여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4월 4일 전봉준이 지휘하고 있던 제중의소 명의로 법성포 아전들에게 보낸 통문에서는 “사농공상 네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우리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위로 국가를 돕고 아래 빈사상태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면 어

찌 다행스런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보국안민을 위해 모두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⁵³

전봉준은 9월 재기병할 때도 북접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학교단의 항일의병전쟁 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곳곳에 방문을 내걸어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의 창의를 촉구하였다.⁵⁴ 전라도 삼례에서 출정 준비를 마친 전봉준은 10월 12일 삼례를 출발하여 10월 14일 논산에 도착하였다. 그는 공주 공격에 앞서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진심어린 편지를 보내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봉준은 물리적 충돌에 앞서 끝까지 상대방과 소통하고 연대하고자 한 것이다.⁵⁵

이러한 노력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수도 이루어졌다. 전봉준은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뒤 마지막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11월 12일 동도창의소 명의로 띄운 고시문에서,⁵⁶ 그 대상을 정부군과 관군, 그리고 하급 벼슬아치는 물론 시장 상인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전봉준은 이 글에서 비록 이념이 다를지라도 척왜와 척화는 같은 만큼 같은 나라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게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대사를 이루자고 호소하였다. 비록 이 고시문대로 군인과 관리 등이 움직여 주지 않았지만, 전봉준은 소통하고 연대하여 함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전봉준의 진솔하면서도 처절한 나라와 동포 사랑을 말해 주고 있다.

5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국사편찬위원회, 1986, 1·20~21쪽.

54 『전봉준공초』, 을미 2월 9일 전봉준 초초 문목.

55 『東學黨征討略記』, 兩湖倡義領袖全瑑準謹百拜上書于湖西巡相閣下(甲午十月十六日).

56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謄書』, 告示 京軍與營兵吏校市民.

이러한 전봉준의 소통과 연대의식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정치체제 구상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⁵⁷ 전봉준은 밑으로부터의 변혁을 성공으로 이끈 뒤 정치체제를 민주적인 집단 합의제로 운용할 생각이었다.⁵⁸ 이는 특정인이나 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의 중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상호 소통과 연대 및 협의·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역사 진전에 따라 공화제는 물론 거버넌스체제를 통한 다양한 세력 사이의 협치를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협치는 이미 전라도에서의 집강소 설치·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봉준은 5월 8일 전주성을 빠진 나온 뒤에 전라감사 김학진과 폐정개혁과 신변안전 보장을 둘러싼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7월 6일 선화당에서의 회담을 통해 집강소를 전라도 각 군현에 전면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심지어 끝까지 집강소 설치를 거부하는 나주목의 경우에도 8월 13일 전라감사 김학진의 편지를 소지하고 찾아가 나주목사 민종렬과의 담판 끝에 수성군의 농민군 공격을 멈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집강소 설치의 민관이 합의에 의해 설치한 최초의 정치기구였을 뿐 아니라, 민중들이 공적인 정치영역에 참여한 첫 사례로서 거버넌스체제를 전망하고 있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는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한 결과물이자 합의제 운영사례로써, 전봉준이 구상하였던 합의법의 실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57 『東京朝日新聞』, 1895년 3월 6일자.

58 이이와, 『전봉준, 혁명의 기록』, 앞 책, 258쪽; 박맹수·조광환, 앞의 논문, 39~44쪽 참조.

4. 맺음말

전봉준이 죽음을 앞두고 쓴 절명시에서 자기 자신을 애인애국(愛人愛國)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듯이, 실제 그의 삶과 사상은 보국안민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한 혁명가였다.

전봉준의 사상적 바탕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이 바라본 인간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인본가치 위에 있는 수평적인 평등한 인간관이었다. 특히 전봉준 의식의 저변에는 하늘에 대한 영적 경외감,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 생태적 우주의식이 깔려 있었다. 이는 사람을 중심에 놓되 못 생명과 하나로 연결된 생태인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전봉준이 바라본 사회는 평등하고 서로 돕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였다. 사회를 바라보는 전봉준의 따듯한 시선은 모든 민중을 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였으며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공의를 기준으로 분별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든 인간을 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이 마주한 현실은 불평등하였고 여러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로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이에 전봉준은 보국안민을 위한 정의로운 혁명의 길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봉준의 정치의식은 전통적인 군왕주의가 해체되고 민이 국왕을 직접 상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그것은 민중들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봉준의 사상은 시대적 한계가 있었다. 그의 인본주의적이고 평등한 사상은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굳어진 유교적 이념과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전봉준은 그의 사상과 꿈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상징화하지 못함으로써 보수적인 양반 유교 지식인의 언어를 빌려만 하였고, 그 결과 그가 꿈꾸는 새 시대를 자기 언어로 새롭게 담아내고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봉준의 사상적 한계는 시대적 한계이다. 그의 시대적 역할은 인본주의의 가치와 사회적 평등의 씨앗을 역사에 심고 받아시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을 키워내 결실을 맺는 것은 후대의 몫이자 미래의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봉준의 사상 원형 속에 담긴 미래가치를 찾아내 미래 지향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심경천하는 동학을 몹시 좋아 한 전봉준의 인간관은 우주적이고 영적이었다. 전봉준은 인륜이 있는 인간을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로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륜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영적·도덕적 심성을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는 결코 아니다. 그의 인간관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모두 하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존재로서 그 자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유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경천사상과 동학의 시천주사상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미래 관점에서 그 가치를 새길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4차산업혁명의 결과 놀라운 속도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사회로의 전환은 인류로 하여금 로봇과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강요하고 있으며, 우주 기술의 발달은 지구를 우주의 작은 푸른 별로 위치 짓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성

이 있다. 그를 위해서는 20세기 사유방식이었던 인간 이성 중심적 사고와 지구속 서구 중심주의를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봉준의 사상 기저에 흐르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인간관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전봉준의 사상은 모든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평등관이었다. 이는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봉준은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하면서도 한결같이 다른 존재와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전봉준이 지향한 정치체제가 합의제였다는 사실과 집강소 설치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현재 진행형이자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초연결 사회라는 점이다. 지구는 초국가적 단일체제화되어 가고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기술과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연결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개방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울러 소통과 연대, 그리고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하게 자기 존재가치를 확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편히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다양한 세력과 소통하고 함께 하고자 한 전봉준의 삶과 사상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인류사회가 서로 차별하고 분열·대립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해결해야 할 인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 뿐 아니라 못생명도 존중하였던 전봉준의 생명 존중의 정신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미래가치이다. 그것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 통일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역사적 경

힘이자 지속가능한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전봉준은 삶과 함이 일치된 인물이었다. 전봉준은 그의 사상이 사유의 세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실현하고 경험하면서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었다.

미래사회는 모든 인류의 지적 자산이 데이터화되면서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신하고 로봇이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마주하는 인간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사유와 실천적인 삶이 요구된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민한 현실 대응과 실천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삶과 함이 일치된 삶을 살았던 전봉준의 혁명기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봉준의 인본주의는 20세기를 지배하였던 인간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전봉준이 지향하였던 인본주의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면서도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우주적 생명관을 가졌을 뿐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부정하는 상생과 평등관을 바탕으로 둔 생태인본주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봉준이 지향한 생태인본주의적 대동사회는 부정되고 서구가 주도하는 인간 이성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그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에코휴머니즘(Ecohumanism)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전봉준 사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코휴머니즘, 즉, 생태인본주의는 20세기 인간이 범했던 지구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인간 이성주의, 남성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 서구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상이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영적인 존재

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만물, 심지어 로봇과도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 안에 있으며 각각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그 사이에는 차이와 공존·공생만 있을 뿐 차별과 불평등은 허용되지 않는 조화와 협력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면서도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봉준 사상의 미래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상징화·기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톨릭 탄압에 대항해서 싸운 영국의 가이 포크스(Guy Fawkes, 1570~1606)가 면이 나쁜 권력에 저항하는 자유시민의 상징이 된 것처럼, 전봉준 역시 시대와 나라를 넘어서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세계적인 보편적 캐릭터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투고일 : 2023.10.26.	심사일 : 2023.11.14.	게재확정일 : 2023.11.16.
-------------------	-------------------	---------------------

참고문헌

- 송정수,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 해안, 2021.
- 이이화, 『전봉준, 혁명의 기록』, 생각정원, 2014.

- 김상준, 「동학농민혁명과 '두 근대'의 충돌」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기타지마 기신, 「토착적 근대화의 지구적 전개」 『한국의 '근대'를 다시 묻는다 -개벽과 근대-』, 제39회 원불교사상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9.
- 박맹수, 「전봉준의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 박맹수·조광환, 「전봉준의 동학사상」, 『한국종교』 53, 한국종교학회, 2022.
-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과 유교」 『역사학보』 236, 역사학회, 2017.
- _____,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내재적 접근」 『역사비평』 110, 역사비평사, 2015.
- _____, 「동학농민전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사림』 45, 수선사학회, 2007.
- 김상준, 「대중 유교로서의 동학」 『사회와 역사』 68, 한국사회사학회, 2005.

-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양식(청주대학교 조교수)

본 논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사상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봉준의 사상적 바탕은 무엇보다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인본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전봉준이 바라본 인간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는 보편적 인본가치 위에 있는 수평적인 평등한 인간관이었다. 더 나아가 전봉준의 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되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는 우주적 생명관을 기반으로 한 생태인본주의였다.

전봉준이 바라본 사회는 평등하고 서로 돕는 상생의 공동체 사회였다. 사회를 바라보는 전봉준의 따뜻한 시선은 모든 민중을 향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하였으며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공의를 기준으로 분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봉준이 마주한 현실은 불평등하였고 여러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로 민중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전봉준의 정치의식은 전통적인 군왕주의가 해체되고 민이 국왕을 직접 상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는데, 그것은 민중이 중세의 질곡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체인 국민으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생태인본주의, 평등사상, 정의, 동학농민군

Abstract

A Study on Jeon Bong-Jun's Ecohumanism and Political Consciousness

Kim, Yang-Sik(Cheongju University, Professor)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thought of Jeon Bong-jun, who was the leader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particular, this thesis aims to analyze Jeon Bong-jun's humanistic thought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Jeon Bong-Jun's ideological foundation was derived from the humanistic view of human beings that people are the most precious in the world. Jeon Bong-joon's view of human beings was a horizontal and equal view of human beings on universal human values regardless of class or status. For that reason, the society Jeon Bong-jun looked at was a community society of equal and mutually beneficial mutual benefit. Jeon Bong-joon's warm gaze toward society was directed toward all the people. In particular, there was a lot of interest i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underprivileged. He treated everyone equally and tried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justice regardless of status or position.

However, the reality Jeon Bong-jun faced was unequal, and the people were groaning due to various social contradictions and absurdities. Jeon Bong-Jun's political consciousness develops to the level where traditional monarchism is dismantled and the people directly deal with the king.

key word : Jeon Bong-Jun, Donghak Peasant Revolution, ecohumanism,
equality, justice, Donghak Peasant Army